

지상파 대표 다큐의 품격!

SBS 스페셜

2021 여름 시즌

〈SBS스페셜〉이 2021 여름, 시즌제로 돌아온다. 장기 취재와 제작으로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하고, 건강, 과학, 자연, 르포, 휴먼 다큐 등 레퍼토리도 더 다양해졌다. 이윤민 PD의 '육채전쟁' (2면)부터 박진홍, 이경홍, 박진용, 주시평, 강범석 PD에 이르기까지, 6인 6색의 고품격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큐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BS스페셜〉 2021 여름 시즌은 지상파 대표 다큐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불멸의 시대_냉동인간과 기계인간’ 2부작(연출: 박진홍, 8/15, 8/22 방송)

2020년 5월, 국내 최초의 냉동인간이 탄생했다. 과학의 힘으로 어머니를 부활시키기 위해 암으로 별세한 팔순 노모를 냉동 보존한 아들. 인류의 오랜 염원인 불멸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그 한계와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닐 하비슨, 루게릭병으로 죽음이 다가오자 '디지털 아바타'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영국의 과학자 피터 스콧 모건을 소개한다. 체장암 4기의 30대 남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트윈' 제작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내 아이, 마약에 빠지다’ 2부작(연출: 이경홍, 8/29, 9/5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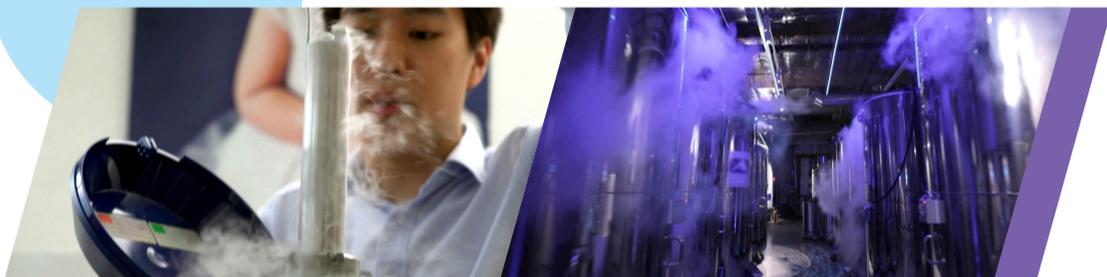
마약 사범 비율 1위는 20대! 당신의 아이도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장기화한 비대면의 일상에서 젊은 마약 사범이 더욱 늘고 있다.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존속 살해자가 된 10대부터, 판매책의 공짜 수법에 중독자가 된 20대 유학생, 호기심에서 시작된 20대 여성 중독자까지. 음지에 가려져 있던 젊은 마약 중독자들의 생생한 실상을 공개한다. 그리고 왜 젊은이들이 마약의 유혹에 더 취약한지 살펴본다.

‘어느 쌍둥이 자매의 기적’ 2부작(연출: 박진용, 9/12, 9/19 방송)

만약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 36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쌍둥이 자매의 기막힌 사연! 그동안 두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갓난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36년이란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자매. 눈물겨운 가족 상봉의 순간부터 가족이 되어가는 감동 스토리를 담았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그 이름, 친부모를 찾아 나선 자매... 자매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까?

‘THE 람쥐_리부트’ 2부작(연출: 주시평, 9/26, 10/3 방송)

거대한 숲에 숨겨진 작고 위대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다람쥐들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치열한 생존경쟁! 'THE 람쥐' 제작진이 4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판타지 다큐.



‘불멸의 시대_냉동인간과 기계인간’



‘내 아이, 마약에 빠지다’



‘어느 쌍둥이 자매의 기적’



‘THE 람쥐_리부트’

SBS스페셜 '육채전쟁' - 육식 vs 채식, 그 승자는?



새롭게 돌아온 <SBS스페셜> '2021 여름 시즌'의 포문은 '육채전쟁' (연출: 이윤민)이 연다. 끼니반란(2013, 2019), 칼로리亂(2018), 끼니外란(2020), 설탕전쟁(2021) 등으로 음식과 우리 몸의 관계에 천착해 온 이윤민 PD가 '육식 vs 채식'이라는 도발적인 화두를 꺼내 들었다. '잘 먹고 잘사는 법' (연출: 박정훈)이 뿌린 채식 열풍 이후 20년, 채식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식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채소와 곡물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다

는 육식주의자, 카니보어(Carnivore)가 등장했다.

'육채전쟁' 팀은 10개월간 세계 4개국의 완전 육식주의자 카니보어, 그리고 완전 채식주의자 비건(Vegan)을 취재했다. 풍요로운 현대인의 밥상 속에서 절반의 음식을 포기한 이들의 극단적 식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고기와 채소에 대한 편견과 상식을 깨고자 한다.

인간은 육식 동물인가, 채식 동물인가. 유인원에서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음식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진화인류학 속 원시인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정말 고기만 먹고, 채소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쌍둥이 트레이너와 두 명의 의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4주 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희비가 엇갈렸다.

역사상 가장 비만한 인류의 시대. 모든 질병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오늘도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비만 연대기는 진행 중이다. 한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지만, 음식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6명의 남녀가 육채(육식 vs 채식) 다이어트에 도전했다. 승기를 거머쥐는 건 어느 쪽일까? 인간이 살찌고 병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육채전쟁'에서 풀어본다.

<SBS스페셜> '육채전쟁'은 총 3부작으로, 6월 27일(일), 7월 4일(일), 7월 11일(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부서탐방



"나도 모르게 원단만져보는 직업병 있다"

- SBS A&T 미술본부 아트2팀 의상 파트

의상 파트의 업무는?

디자이너 5명과 현장 진행 4명, 총 9명이 외부 인력 20여 명과 SBS의 전체 의상 업무를 담당한다. 외부 사업도 활발히 진행한다. 뮤지컬/영화/광고/공연 의상 등의 디자인이나 SBS 프로그램 의상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스토브리그> 유니폼 등), 롯데월드의 교복 매장(<펜트하우스> 교복) 운영 등이다.

의상 디자이너의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

연출자와 협의를 거쳐 의상을 기획하고 예산을 정한다. 전체적인 의상 콘셉트는 일러스트와 도식화 등의 스타일 맵 작업 후 연출자와 연기자, 관련 미술 스태프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콘셉트가 확정되면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 발주하거나 협찬을 진행한다.

현장 진행자의 업무 프로세스는?

시놉과 대본을 검토하고 연출자와 촬영 계획에 대해 협의한 후 보유 의상을 파악하고 디자이너와 예산을 산정한다. 촬영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출연자 의상을 설정에 맞게 지급하고, 의상 착장과 '연결 체크'를 철저히 진행한다. 모든 촬영이 종료되면 재활용을 위해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는 예산 절감과 외부 임대 수익으로 이어진다.

요즘 일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는?

<홍천기> 아역 중 한 명이 8cm나 자라버려 의상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사극은 촬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역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모닥불 장면 촬영 중에 한복에 불씨가 튀어, 급히 누덕누덕 기워서 촬영을 끝내는 해프닝이 있었다. 사극 의상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진다. 조심하지 않으면 찢어지거나 오염되기 쉬워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라켓소년단>은 스포츠 드라마 특성상 의상들이 항상 땀에 젖어 있다. 촬영 일정에 쫓겨 제때 세탁을 못 할 경우 다른 의상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한밤에 숙소에서 손빨래도 감수한다.

<모범택시>는 의상 콘셉트가 '레트로'이기 때문에 80% 이상을 구제시장과 빈티지 숍에서 준비했다. 덕분에 구제시장과 재래시장 상권에선 <모범택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시청률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70~80년대 사설감옥 죄수들 내복이 설정됐는데, 현재 시판되지 않는 아이템인 데다 내용도 좋지 않았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쌍방을 마케팅팀에 문의했는데, 간곡한 설득과 애원 덕분에 40여 벌의 협찬을 받아들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장르는?

사극이 투입 인력이나 예산, 업무량이 많다. 게다가 철저한 고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대부분 '퓨전 사극'임을 내세워 역사 왜곡 논란을 비껴가려고 하나, 유물이나 문헌 자료가 충분한 시대의 사극은 시청자의 단두대에 오르기 쉽다. 하반기 방송 예정인 <홍천기>도 판타지 퓨전 사극이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드라마인 것 같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서에 반하지 않고, 극중 캐릭터에 맞으면서 연기



김민경 한선수 손오호 이성훈 송지현 탁은주 최점식 김수안 김정철

자와 시청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직업병이 있나?

의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원단을 만져보고 브랜드 상표를 뒤집어 본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개인적인 쇼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작은 구경이었지만 결국은 전공 관련 서적이거나 특이한 소품, 원단 등을 구매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늘어난 짐으로 가족의 눈총을 받는다.

끝으로 한마디

의상팀은 많은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최근 XR, 메타버스 등 가상 현실의 고품질 방송 콘텐츠 제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뒤쳐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주말 SBS 8 뉴스 'THE SPECIALIST' - 뉴스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4인의 기자 어벤져스가 PT로 풀어주는 전문 지식 '머리에 쏙쏙'



주말 <SBS 8뉴스>에서 3월부터 선보인 '스페셜리스트' 코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스페셜리스트'는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 문화-예술 전문 김수현 기자, 자타공인 야구 전문 이성훈 기자, 과학-기상 담당 정구희 기자 네 명이 만드는 기획 뉴스 코너다. 기자를 앞세울 수 있는 브랜드 기획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코너는 매주 4명의 기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전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스페셜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기

존의 TV 뉴스 기획물에선 보기 어려운 기자 1인 PT방식을 선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장소,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부무려 전문적인 주제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 보도국 8뉴스부 뉴스기획팀 남정민·권영인 기자, 신희숙 작가로 구성된 제작진은 "구성과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권영인 기자는 "기획물은 TV든 온라인이든 뉴스 시장에서 못난이가 되기 쉽다. TV에선 뉴스 밸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에선 재미있는 게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기자

이름을 브랜드로 내세워서 그 두 곳에서 모두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남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스토리와 퀄리티를 차별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4명 기자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스페셜리스트'는 확장과 변형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다. 제작진은 "제작 포맷에 기자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 또 다른 콜라보와 스펀오프 버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에 도움 되는 콘텐츠 만들고 싶다"

- 팟캐스트 <밀떡> 진행자 박찬준(윤리경영팀 부장)

행정직인데 방송을 하는 특이한 경우다. 어떻게 하게 되었나?

제가 군사 전문가라고 소문이 났나 보다. 2016년 말, 김영우 라디오콘텐츠전략팀장이 이리이러한 사람들과 군사 전문 팟캐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다. 당시 라디오센터는 팟캐스트 제작에 뛰어들어 지상파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를 실험하고 있었다. 방송에 문외한이라고 사양했으나, 원래 팟캐스트는 비전문가가 하는 거라고 해서 용기를 냈다. 2017년 1월 6일에 <밀떡>의 원년 멤버로 참여했다.

<밀떡> 소개를 해 달라.

남자 서넛이 모이면 하는 군대 이야기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패널은 군사 전문 잡지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정명섭 작가가 고정으로 정착했고, 제작은 김명훈 프리랜서 PD가 하고 있다. 방송인 고현준 씨가 진행하다가 하차한 뒤 3년 전부터 제가 진행자가 돼버렸다. 게스트가 출연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 국방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전인범 전 장군이 나오시기도 했고, 여군 전문 모델인 연수유라 님이 나오는 등 폭이 넓다. 가볍고 재밌게 진행하려고 납량특집으로 군에서 전해 오는 귀신 이야기도 하고, 청취자 대상 퀴즈 이벤트도 했다. 상품은 제 프라모델을 비롯해서 패널들이 찬조한 물품으로 조달했다.

현황은?

구독자 수나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는 등 시사교양 카테고리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팟캐스트 특성상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제작년 대대적인 정비에도

살아남아 5년 차를 맞았다. 2년 전부터는 이미지와 자막 작업을 거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다. 지금까지 260여 개의 에피소드가 올라가 누적 조회 수 330만을 넘어섰다. 가장 조회 수가 높은 건 '인도-파키스탄 충돌, 사실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자주포 대결이었다?'로, 1년이 안 돼 1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언제부터 '밀떡'(밀리터리 마니아)이 되었나?

어렸을 때부터 무기 관련 프라모델에 관심이 많았다. 항공 무기부터 시작해서 해상, 지상 무기 체계로 넓혀가면서 오랜 기간 지식을 쌓았다. 국방 관련 뉴스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공신력 있는 국내외 사이트를 참고하는 식이다. 수년 전 제가 회원으로 있는 유명 밀리터리 사이트에 자칭 군사 전문가라는 분이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서 거기에 반박 글과 관련 자료를 올린 적이 있다. 그게 3만 회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요즘도 국방 관련 오보나 잘못된 분석 기사 등이 많다. 쑥스럽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내공은 쌓였다. 사우들이나 법무팀에서 물어 오면 아는 한도에서 성실히 답해준다.

취미가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97년에 회계 전문 경력직으로 SBS에 왔다. 관재팀, 재무팀, 총무팀을 거쳐 지금 윤리경영팀은 두 번째이다. 정기 감사와 외부 감사로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팟캐스트는 제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다. 격주로 월요일에 녹음(녹화)하고 있는데 그 전 주말에 패널들과 단독 방에서 6개의 아이템 주제를 정한다. 업무가 끝난 월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여 에피소드당 30분, 총



3~4시간 동안 녹음(녹화)을 한다. 제작진의 편집을 거쳐 나뉘어서 업로드되며, 유튜브는 별도 편집을 거쳐 그중 4~5개가 올라간다. 사내 출연 규정에 따라 소액의 수고비를 받고 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한다. 부인은 잘 이해해주나?

연애할 때 지상군 페스티벌이나 에어쇼장에서 데이트하기도 했다. 다 알고 결혼한 거라 본인은 관심 없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결혼한 남자는 집에 자신만의 공간이 없다. 모던 프라모델들은 다 남 쥐버리고 지금은 딱 하나 남겨 두었다. 속칭 '톰캣(Tomcat)'이라고 하는 F-14A 기종이다.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몰던 미 해군 함재용 전투기다.

끝으로 한마디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방 정론이 있을 것이다. 그걸 공유하고 정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팟캐스트도 그런 바람을 자연스럽게 실행해주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 하다 보니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더해진다. 사우 여러분의 응원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SBS - KOTRA - Shopee Korea, 글로벌 미디어커머스 사업 손 잡았다



김상목 KOTRA 혁신성장본부장 / 최영인 SBS 예능본부장 / 권윤아 쇼피코리아 지사장

SBS와 KOTRA, 쇼피(Shopee)가 글로벌 미디어커머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6월 18일(금), SBS 목동 사옥 1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한류 콘텐츠를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마케팅, 글로벌 커머스 물품 통관 결제 및 배송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KOTRA는 해외 마케팅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한 현

지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한류 콘텐츠 연계 기획전을 개최한다. 쇼피코리아는 쇼피 내 기획전 페이지 개설, 참가 기업 모집, 입점 및 판촉을 지원할 예정이다.

SBS는 한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한류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커머스가 'NEXT 한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콘텐츠로 <런닝맨> 베트남판 시즌 2를 베트남 현지에서 제작, 방영하며 향후 K-POP 콘서트, 동남아(필리핀 등) 런닝맨 공동제작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농장 - 무역협회, '펫스타 오픈 이노베이션 데모데이' 개최

6월 17일(목)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TV 동물농장>과 한국무역협회 주최 '펫스타 오픈 이노베이션 데모데이'가 열렸다. 이 행사는 <TV 동물농장>과 향후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테마파크 등에서 협업이 가능한 반려동물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100개사 이상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 8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데모데이에 참가했다.

데모데이에는 고양이용 소변 진단 모래(퓨처바이오웍스), 반려인 및 반려동물 심리검사 키트(카미소프트), 비주얼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집사(두다지), 메타버스 기반 반려동물 게임(더블미), 나홀로 반려동물 장난감(로이코그립)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및 기술이 선보였다.

<TV 동물농장> 및 협업 기관들은 이 8개 스타트업에 대해 추가로 현장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고 추후 브랜드 라이선스, 공동사업 발굴, 기술제휴 기회 제공 등 협업 형태를 구

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SBS 미디어넷

'봄, 기업 매칭 붐神 활약' ... <콜라봄신>, 상생 프로젝트 가동



SBS미디어넷 웹 예능 <콜라봄신>이 6월 10일(목) 0회에 이어 17일(목) 1회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콜라봄신>은 기업과 기업이 만나 신박하고 재미있는 제품을 탄생시키는 기업 매칭 콘텐츠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편슈머'(Fun+consumer)와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가 소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에 발맞춰 <콜라봄신>이 나섰다.

<콜라봄신>은 현재 섭외 1순위로 꼽히는 붐을 진행자로 내세워 전에 없던 새로운 편슈머 예능을 선보인다. 붐은 국내 최초의 기업 짝짓기 프로젝트에 기업들의 새로운 홍보 전략과 신제품 출시, 기업과 기업의 콜라베이션 매칭을 성사시키며 '협업의 신'으로 활약한다.

특히 붐은 참신하고 신박한 아이템 출시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업과 기업의 매칭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남다른 추진력과 진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작진은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기업에는 이미지 제고와 성장의 기회가 될 상생 콘텐츠 제작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콜라봄신> 2회는 오는 6월 24일(목) 오후 5시, 유튜브 채널 <콜라봄신>, SBS F!L을 통해 공개된다.

SBS 디지털뉴스랩

'제1회 스브스뉴스 콘퍼런스, 스콘' 성황리에 막 내려



'스브스뉴스 콘퍼런스, 스콘'(이하 '스콘')이 6월 22일(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스콘'은 스브스뉴스가 뉴미디어 업계에서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 오며 배운 것과 고민한 것을 업계 관계자들과 나누고, 동반 성장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마

련됐다. 6월 7일(월)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자 반나절 만에 50명의 정원이 다 차, 급히 70명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양해를 구해야 했다.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된 '스콘'은 <스브스뉴스>와 <문명특급> 등의 내부 제작진과, <각별>, <샌드박스>, <인어교주해적단> 등 주목받고 있는 뉴미디어인 유명 브랜드 회사 소속 패널들이 강사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콘텐츠 제작과 브랜드 콘텐츠, 채널 브랜딩, 커머스에 이르기까지 각자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SBS디지털뉴스랩 이아리따 작전콘텐츠팀장은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뉴미디어에서 스브스뉴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스콘이 스브스뉴스의 대외 브랜딩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스콘'은 지난해 스브스뉴스가 SBS디지털뉴스랩 크리에이티브 사업 부문으로 분리된 뒤 처음 여는 대외적인 행사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스콘'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년 첫 론칭 이후 스브스뉴스는 국내 대표적인 뉴미디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명특급>, <오목교전자상가>, <뉴땡> 등 정보와 재미를 모두 잡는 서브 브랜드들을 선보이고 있다.